

'외래해충, 천적으로 방제 가능'

콩 등 작물에 피해를 주는 미국선녀벌레의 천적 '선녀벌레잡게벌'로 농진청, 방제 효과 지속 위한 연구 진행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외래해충인 미국선녀벌레 방제를 위해 외국에서 도입한 천적 '선녀벌레잡게벌'의 국내 월동을 확인하고 미국선녀벌레와 활동 시기가 맞아 생물적 방제에 활용할 수 있음을 관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북미가 원산인 미국선녀벌레는 먹는 식물이 다양해 농경지와 산림을 이동하면서 콩, 옥수수, 단감, 인삼 등 작물에 피해를 준다. 작물의 양분을 빨아들이며 시들게 하거나 고사시킬 수 있으며, 감로(일종의 배설물)를 분비해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열매 그을음 병을 일으킨다. 지난 2009년 서울과 밀양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 중이며, 지난해에는 112개 시·군 10,700ha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선녀벌레를 효과적으로 방제할 천적이 없어 농진청은 2017년 이탈리아 아 피오비네티아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미국선녀벌레의 천적으로 효과가 뛰어난 선녀벌레잡게벌을 도입해 국내에서 증식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선녀벌레잡게벌은 미국선녀벌레의 애벌레를 잡아먹거나 애벌레 몸 밖에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지난달 31일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충남 당진시 과수농가를 방문해 확산 방지를 위한 과수 매몰 등 방제 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지난달 31일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충남 당진시 과수농가를 방문해 확산 방지를 위한 과수 매몰 등 방제 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그 속에서 기생하는 천적곤충이다. 미국선녀벌레에 민든 기생 주머니에서 살던 선녀벌레잡게벌 애벌레가 주머니 밖으로 나오게 되면 미국선녀벌레 애벌레는 죽는 데. 일반적으로 곤충의 생활사는 시는 곳의 기후와 온도, 광주기 등 환경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선녀벌레의 국내 월동 여부, 활동 시기를 확인하는 것은 생물적 방제를 위

기 충분한 상태에서 선녀벌레잡게벌 성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히 미국선녀벌레 천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김현란 과장은 "앞으로 선녀벌레잡게벌에 상대적으 로 독성이 낮은 미국선녀벌레 방제 약제를 선발하는 등 방사한 천적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생물적 방제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가 충분한 상태에서 선녀벌레잡게벌 성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히 미국선녀벌레 천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김현란 과장은 "앞으로 선녀벌레잡게벌에 상대적으 로 독성이 낮은 미국선녀벌레 방제 약제를 선발하는 등 방사한 천적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생물적 방제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생체인증'으로 수급자 편의 향상

국민연금, 디지털 신기술 적용 '수급권 확인 시스템' 개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수급자의 변동사항을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연금이 잘못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자료 등을 통해 수급자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외국 국적 수급자나 재외국민 등 해외 수급자의 경우, 매년 거주 확인서와 공적 자료를 우편이나 팩스로 직접 제출해야만 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었다.

이에 공단은 개인정보를 분산시켜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기술을 접목해 수급자의 신원을 검증하고 안전하게 자료를 송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시스템이 개발되면 최초 등록한 본인 정보를 바탕으로 디지털 인증만으로도 수급권 확인이 가능해져 업무효율성이 증대되고 수급자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제출 서류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 전자 문서 등의 기술을 적용하고 DB 암호화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블록체인 선도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으며, 올 하반기 개발 완료 시 미국, 캐나다, 태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적용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수급자 변동사항을 적시에 확인하고 부정수급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한 연금서비스에 적용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중소상공인 등 위한 역할 다 할 것'

김종기 신임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전주지부 회장 취임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지부(총대, 2대회장 임규철)는 지난달 31일 전주 아름다운재단홀(3층)에서 회원,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대 회장 취임 및 임원 발대식을 진행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004년 국회에서 제정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07202호)'에 의해 2005년 법인 설립(행정자치부)된 경제단체로, 290여개의 전문직 지영업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 단체로 구성됐다.

이날 제3대 회장에 취임한 김종기 신임회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사정이 열악한 우리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이중고까지 겪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 지영업자들을 위한 우리 직능단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말했다.

임규철 이임회장은 "지난 4년간 우리지부는 어려움 속에서도 직능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해 '유형산업발전법' 개정 노력과 내·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



칙 개정 노력에 목소리를 내왔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박람회,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캠페인, 현열 동참 캠페인, 저소득층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등 같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제3기 전주지부 고문에는 박재호(유종양환경기업회장),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문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자문위원에는 송성환(전북도의원), 국주영(전북도의원), 김명지(전북도의원), 강동화(전주시의회 의장), 이기동(전주시의원), 김윤철(전주시의원), 이남수(전주시의원), 박선진(전주시의원) 등이 위촉됐다. /김윤상 기자

전은-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지털 혁신 추진 전략 협약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지난달 28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전북은행과 카카오는 이번 협약을 통해 ▲비대면 고객 CS 및 디지털 마케팅 고도화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을 위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도입 ▲클라우드 기반의 예차일 IT운영환경 조성 ▲전북은행 미디어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데이터 분석 역량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비대면에서의 차별화된 고객경험 제공을 위해 카카오 플랫폼 활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카카오를 채널을 통한 신규 고객 유입 마케팅 및 챗봇을 활용한 상품 가입 프로세스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김윤상 기자



'서부산림청 개청 30주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이 지난달 31일 개청 30주년을 맞았다. 서부청은 광주, 전남·북, 서부경남, 제주 등 총 5개 시·도 54개 시·군·구 279만 7,000ha의 관할구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1991년 5월 31일 남원영림서로 시작, 2003년 12월 30일 서부지방산림청으로 개칭하고, 2018년 2월 2일 조직개편을 실시해 현재의 조직체계(1팀 2과 5개 관료소, 2개 양묘사업소)를 갖추었다.

또한, 국가 산림정책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이 편리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임도개설 및 관리, 유전자원보호구역관리,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조림 및 벌채사업, 산림복지를 위한 산림문화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산림을 관리하고 있다. /남원=김기우 기자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재사용 확산 협력

전북농협-전북환경본부, 탄소중립 달성 협약 체결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본부장 정재웅)는 지난달 31일 농협전북지역본부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재사용 확산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감시 활동 강화 ▲환경보호 캠페인 농촌입승등기 등 사회공헌활동 실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전북농협이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 일손부족 문제도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환경본부 정재웅 본부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어려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민·관 등 지역사회 모두가 합심해야 할 때"라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고, 지역사회 공익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6월 전북 중기 업황전망지수 71.2p

전월보다 0.9p 하락... 5월 경영여로 응답 중 내수부진이 가장 많아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승찬)가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전북지역 소재 1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6월 전북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전북지역의 6월 경기전망지수(SBI)는 71.2로 전월대비 0.9p 하락(전년동월대비 12.9p 하락)했다.

이는 올해 3월 이후의 상승세(2월 80.5 → 3월 82.7 → 4월 70.2 → 5월 72.1)를 이어가지 못한 흐름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안요인이 제조업 중심의 경기전망조사 결과,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82.2로 전월 대비 2.0p 하락, 전년동월대비 2.1p 하

락했으며, 비제조업은 57.0으로 전월 대비 0.7p 상승, 전년동월대비 26.9p 하락해 업종간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세부 항목별로는 내수판매(72.5→70.4), 고용수준(89.1→88.8)에서 하락했고, 수출(88.9→84.4), 영업이익(86.3→88.1), 자금사정(68.2→68.8)에서는 상승했다.

5월 중소기업의 경영여로 응답을 살펴보면, '내수부진'(61.5%), '인건비 상승'(49.2%), '원자재 가격상승'(31.5%), '자금조달 곤란'(26.2%), '업체간 과당경쟁'(23.8%), '인력확보곤란'(23.1%) 순으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자

전주상의, 경제유관기관장

대상 산업보안교육 실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는 지난달 31일 전주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경제유관기관·단체장과 전주상의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보안교육을 실시했다.

전북지역경제협의회(회장 이승복) 위원회의에 앞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최근 국내 기술 유출 등으로 피해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산업기밀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지부담당관을 초청해 실시하게 됐다. 전주상의 윤방섭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달 31일 전주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경제유관기관·단체장과 전주상의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보안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만 산업현장에서 기술 유출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산업보안이 매우 중요한 만큼 경제유관기관장들

의 의식제고를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자창구 시스템 대폭 개선

NH농협은행 전북본부, PPR 신시스템 오픈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일환으로 기존 전자창구(PPR)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전자창구(PPR) 신시스템을 오픈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PPR(Paperless Process Reengineering)은 금융거래 시 종이서식 대신 전자화된 서식을 사용하는 창구 시스템으로, 농협은행은 신시스템의 성공적 오픈을 위해 지난해 전자창구 장비를 4,000여대가 보급했으며, 기존 종이 인체의 디지털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농협은행은 이번 신시스템 도입으로



불원전판매 방지 등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산처리속도의 상승을 통해 고객만족도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공공주도 매립 본격 추진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의 공사용 진입도로 공사를 지난달 27일 완료하고, 이에 따라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사업지역 내 첫 도시로 조성되며, 양질의 주거 기능을 제공하고, 스마트 기술 등을 접목한 문화·산업 기능을 도입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변도시는 현재 매립공사를 우선 추진 중에 있으며, 매립공사는 공사용

진입도로 공사, 제방 공사, 준설·매립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2023년 6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매립공사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계통건설 컨소시엄(대표사 계통건설)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매립공사를 위한 선행공사인 새만금방조제와 수변도시를 잇는 공사용 진입도로를 지난달 27일 우선 완료했다.

매립 공사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따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4월 본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유호상 기자